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9월이 오면

다시 모이고... 새로 열리고

9월부터 교회학의 여름행사와 휴가 등으로 7·8월에 쉬었던 모임이나 교육이 다시 시작된다. 또 새로 성경대학 등이 시작된다.

재개 안수집사·권사교육, 다락방모임, 교사대학

여름 동안 잠시 쉬었던 다락방 모임을 9월부터는 종전처럼 매주 모이게 된다. 교구위원회에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락방 모임을 재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다락방장은 그 주에 모인 인원과 다음 모임 장소를 매주 교구위원회로 알려주어야 한다.

피택안수집사와 권사 교육도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각각 실시된다. 이 교육은 피택안수집사와 피택권사가 임직을 받는 11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또한 교회학교 교사 및 교사지

망생을 위한 교사대학강좌도 다시 열리게 된다. 교사대학강좌는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에 실시된다.

개설 서울성경대학, 음악학교

서울성경대학이 새로 개설되어 9월부터 본격 개강에 들어갈 예정이다. 평일을 이용하여 신구약 전체를 공부할 수 있도록 개설된 서울성경대학은 신구약 전체를 강좌과목으로 하여 학기제로 운영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다. 정원은 각 강좌별로 100명 이내가 원칙. 등록금은 1만원이며 참가신청 및 문의는 교육위원

서울성경대학 제 2학기 교과과정표(9~12월)

강좌	요일·시간	강사	개강일
마가복음	월요일 오전 10시	이순환 목사	9월 8일
베드로서	월요일 오후 8시	김명헌 목사	9월 8일
아가	화요일 오전 6시	박귀환 목사	9월 9일
다니엘	화요일 오후 8시	이성득 목사	9월 9일
욥기	목요일 오전 6시	이종윤 목사	9월 11일

회사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서울교회 음악학교도 9월 4일에 시작한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하는 서울음악학교에서는 성경, 발성, 가창, 음악이론, 독보요령, 호흡법 등을 배울 수 있다. 서울음악학교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신앙적 성숙과 아울러 음악 지식의 함양으로 좀더 아름답고 조화로운 찬양을 하도록 해 개설된 것이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찬양위원회나 사무국.

개강 제1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9월 8일에는 제 1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개강한다. 이번 학기 주제는 "교회와 국가"이며 11월 17일까지 추석연휴기간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에 세미나가 진행된다. 온 성도는 기도과 봉사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다. <4면에 세부일정>

목회자세미나에 봉사할 분 찾습니다

사무국서 접수 ... 다음 주일 저녁 봉사자 교육

할 일	요일 / 시간 / 봉사할 곳	필요한 인원(최소)
식사 재료 구입	금요일 혹은 토요일/오전/교회, 시장	운전 가능한 분(두 분)
강의안 편찬, 제본	토요일/오후 3 - 5시/교회	여집사님 (세 분)
교재·유인물 준비	주 일/소망부 집회 후/교회	모세선교회원
식사준비	월요일/오전 6시 - 10시/교회	한나, 에스더 회원
집꾸리고 이동하기	월요일/오전 9시 - 11시/교회	남자 성도 (다섯 분)
식탁, 강의실 의자 설치, 방송실 점검	월요일/오전 10시 - 12시/YMCA	남자성도 (스무 분)
차량관리(Y정문, 지하, 양지아파트)	월요일/오후 1시 - 3시, 5시 - 6시	남자 성도 (여덟 분)
안내(현관, 엘리베이터, 강의실)	월요일/오후 12시 30분 - 3시/YMCA	안내위원 (열 두 분)
등록 및 접수	월요일(첫 두주)/12시 - 오후 4시/YMCA	열 두분(3인 1조로 4조)
테이프, 서적 판매 및 관리	월요일/오후 12시 30분 - 3시/YMCA	여집사님 (네 분)
교회에 남아서 돕는 일(전화안내)	월요일/오후 1시 - 4시/교회	여자 성도 (한 분)
배식, 음료수 대접	월요일/오후 12시 30분 - 3시/YMCA	한나, 에스더 회원
교재·유인물 배부	월요일/오후 12시 30분 - 3시/YMCA	모세선교회원
식탁·접수탁자·교회물건 철수	월요일/오후 3시 30분 - 4시 20분/YMCA	남자 성도 (열 분)
강의실 의자 철수, 청소, 정리	월요일/오후 5시 30분 - 6시/YMCA	남자성도 (스무 분)
철수한 교회 물품 정리	월요일/오후 4시 - 7시/교회	남·녀성도 (각 세 분)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는 제 1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수고하실 봉사자를 찾고있다.

전국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목회자신학세미나에는 매회 700~800명이 강남 YMCA대강당을 메운다. 더욱이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교회와 국가'를 주제로 한 이번 학기에는 다른 학기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미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봉사자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봉사하실 성도는 사무국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는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봉사하실 성도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다음 주일 찬양예배 후 403호실에서 갖기로 했다.

강해설교
여호수아서

6장 1~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옛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 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칠일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칠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집에 돌아오니라 옛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칠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일곱 번 돌니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수6:1-27)



이종운 목사

하나님의 여리고 작전

여호수아 장군 막사에서 벌어진 참모회의는 자못 진지했습니다. 실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게 단한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는 전략회의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총사령관인 여호수아는 사령관의 사령관 되시며 최고 전략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작전에 의존키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주셨다고 했습니다(6:2). 그리고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시달되었습니다.

“모든 군사로 하여금 매일 한 차례씩 성 주위를 돌되 6일 간 그리하라 성을 돌 때 온 백성은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날인 일곱째 되는 날엔 성을 일곱 번 돌되 제사장 일곱 사람이 각각 양각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 앞서 가고 나팔소리가 날 때 큰 소리로 외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높은 성벽을 어떻게 나팔소리로, 그리고 백성의 합성 소리로 무너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리고 성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6:20).

여호수아의 승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그토록 소원하던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그는 준비를 철저히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준비가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여리고 작전 제 1단계 - 침묵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기다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침묵하라 하셨습니다(10절). 멸해야 할 성을 돌면서 100만 명이 넘는 백성들로 하여금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명령은 지키기에 참으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돌면 돌수록 난공불락이라는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 전에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편전에서 입을 다물어라.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1단계 작전이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될 때는 자기 말을 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면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조용한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남을 원망하거나 자기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2. 하나님의 여리고 작전 제 2단계 - 순종

순종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히 11:30).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거역하는 것은 사술(사신우상숭배)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완전 복종은 계속하는 복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들을 이미 다 받았으나 백성들은 단지 여리고 성을 하루 한 번씩 6일 간 돌고 7일째 되는 날엔 일곱 바퀴 돌 것을 지시받고는 그 외의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로부터 당일의 일과에 대해 그날 그날 지시를 받았을 뿐입니다. 백성들은 옛새 동안 여호수아의 명대로 성을 한 바퀴 돌고는 다시 진중으로 돌아왔습니다. 6일 간 무슨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은 채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는 무미건조한 행진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임을 믿었고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갖고 일을 이루고 계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여리고 작전 제 2단계인 순종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히 응답이 없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3. 우리의 여리고 작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수세에만 몰릴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기도로 받고, 침묵하고 순종하여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어제나 오늘이나 분명합니다. 그 방법 앞에서 사탄은 반드시 항복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는 성도가 됩시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적하는 이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청년부수련회를 마치고

“청년이 무엇으로 살리이까”

“주를 깨닫는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김찬열

특강을 통해 결혼에 관해 말씀하실 때 청년들의 모습은 사뭇 진지했다. 나 역시 이번 특강을 통해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체계 있게 정리할 수 있었다. 목사님은 결혼을 먼저 한 선배로서 우리에게 너무도 유익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그 말씀 속에서 나는 많은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알짜 배기를 얻은 기분이다.

캠프파이어를 끝으로 못내 아쉬운듯 숯불을 뒤적이며 군감자를 찾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평소에도 늘 생각해 온 것이지만 우리 청년부에 모이는 청년들이 너무 순수한 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이번 수련회에서도 사랑스런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때묻지 않은 영혼을 가진 청년들과 지내면서 내 자신도 정화됨을 느꼈다.

“스물일곱살의 고민”

이선영

난 이것 저것 고민을 많이 하는 성격이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14:1)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길 기대하며 이번 수련회에 참석했다.

내 나이 올해 27세. 배우자를 만나는 문제, 결혼 후 직장의 문제 등등이 고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에서의 특강, 저녁 부흥회 시간의 말씀 등을 통해 많은 해결책을 찾게 되었다. 그간 나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을 많이 했으며 내 자신에 대해서도 ‘이것은 안돼, 저건 할 수 없어’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제한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들으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나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 분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깊이 깨닫게 되었

다. 아주 기본적인 사실이지만 이번에 비로소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닫는 은혜 속에서 풍량이 일던 내 마음은 잔잔해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고민거리를 내려 놓고 내 미래를 맡기며 더 열심히 준비해야 하리라. 이번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수련회에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신 목사님과 보이지 않게 수고한 많은 손길에 감사드린다.



“내 입을 크게 열었더니...”

문희정

해마다 가장 큰 행사인 여름수련회는 교회학교 활동의 절정을 이룬다. 매년 갖는 행사임에도 수련회를 준비하는 마음이 늘 설레고 새로운 것은 주님께서 내려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 때문일 것이다. 이번 수련회에도 주님은 기대 이상으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셨다.

2박 3일 간 미금선교원에서의 날씨를 비롯한 모든 여건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첫 시간, 각기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엔 얼마나 기뻐했는지 평소 알던 형제자매가 아닌 듯했다. 조별 모임에서는 “청년이 무엇으로 살리이까” 하는 주제에 맞춰 조 이름과 구호, 조가까지 만들어 발표했다.

둘째날 결혼에 관한 특강은 우리만 듣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만큼 참으로 유익한 것이었다. 이어 공동체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실감했다. 가슴 찡하게 했던

‘천로역정’. 웃고 떠들던 우리들 모두 잠잠히 주님의 고난의 함께 생각하며 ‘고난의 문’, ‘성찰의 문’, ‘협력의 문’을 함께 통과했다. 주님을 믿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함께 손잡고 협력하리라는 다짐을 했다.

수련회의 하이라이트는 저녁부흥회. 그간 클 클했던 심령이 시원함을 얻고 영혼의 갈증이 사라지는 듯했다. 뜨거운 눈물의 기도로 함께 했던 시간들을 잊을 수 없다. 쓸데없는 염려와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겨워 하던 피로감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이 살맛나게 느껴지고 내 존재이유 또한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이야깃거리들은 언제까지 잊지 못할 젊은 날의 추억으로 가슴에 묻어둘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신 참 좋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원대한 비전과 용기를 얻고”

정치은

서울교회에 등록된 지 4개월째인 나에게 청년부 수련회는 처음 맞이하는 것이었다.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부족함이 없었던 알찬 수련회였음을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한정된 공간에서 며칠간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참석한 청년들 모두가 성령충만한 가운데 하나될 수 있었다. 나 개인적으로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청년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삼가 조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했다.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마음대로 편견을 가지고 편협하게 생활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청년으로 살 것을 결심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내 시각을 넓혀서 세계를 향한 원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있는 하나님의 청년이 되게 해 주심사고 간절히 기도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엡5:18).

올 여름 나라 안팎서 흘린 복음의 땀



▶파키스탄 마약중독자 치료소 방문 중인 파키스탄 선교여행단(이종윤 목사 우측이 박종상 선교사)

▼이종윤 목사의 설교를 경청하고 있는 파키스탄 교회의 성도들

▶익산 신석교회에서 봉사한 농촌전도단



제 1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일정표

1997년 9월 8일 ~ 11월 17일(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5시 20분)

“교회와 국가”

실시일	제 1 교시	제 2 교시
9. 8.	로마서강해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허영(연세대 교수)
9. 22.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교회의 사명 한완상(방송대 총장)
9. 29.		교회와 국가의 관계 이희창(신한국당 대선후보)
10. 6.		교회와 국가의 관계 김대중(국민회의 대선후보)
10. 13.		교회와 국가의 관계 김종필(자민련 대선후보)
10. 20.		교회와 경제질서 송자(명지대 총장)
10. 27.		교회와 바른 선거 김상철(한미우호협회장, 변호사)
11. 3.		독일 통일에 미친 독일 교회의 역할 박종화(기장총무)
11. 10.		북한교회의 실정과 재건을 위한 제안 조창호(귀환용사)
11. 17.		21C 한국사회의 정신문화와 교회 이영덕(정신문화연구원장)

◆ 순례자 컬럼 ◆

한밤중의 두드림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자산이며 무기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효력은 발휘되지 못한다. 그런 고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인간의 소욕을 따라 하는 것은 기도의 목적에서 이탈된 것이다. 좋은 형식과 화려한 문장을 엮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원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또 하나는 지구력을 갖고 구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고 응답없는 것만 괴로와하지 말고 억울한 사정을 법관에게 호소기 위해 한밤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던 한 과부의 심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동정

- ◆ 이종윤 목사는 27일(수) 서울여대이사회에 참석.
- ◆ 김혜언 집사 · 박은영 성도(6교구, 인천다락방) 가정 독녀.
- ◆ 오늘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안순이 권사 가정에서 제공.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천국시민양성'을 위한 교회학교 교육을 위해
2. 교회학교의 여름행사가 결실할 수 있도록
3. 제 1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